# '전침기 안전 필수성능 요구사항' 국제 표준으로

김지영 기자 | 승인 2022.06.22 12:00

## 한의학연 , 국제표준 채택 주도
## 한방용 의료기기의 세계시장 선점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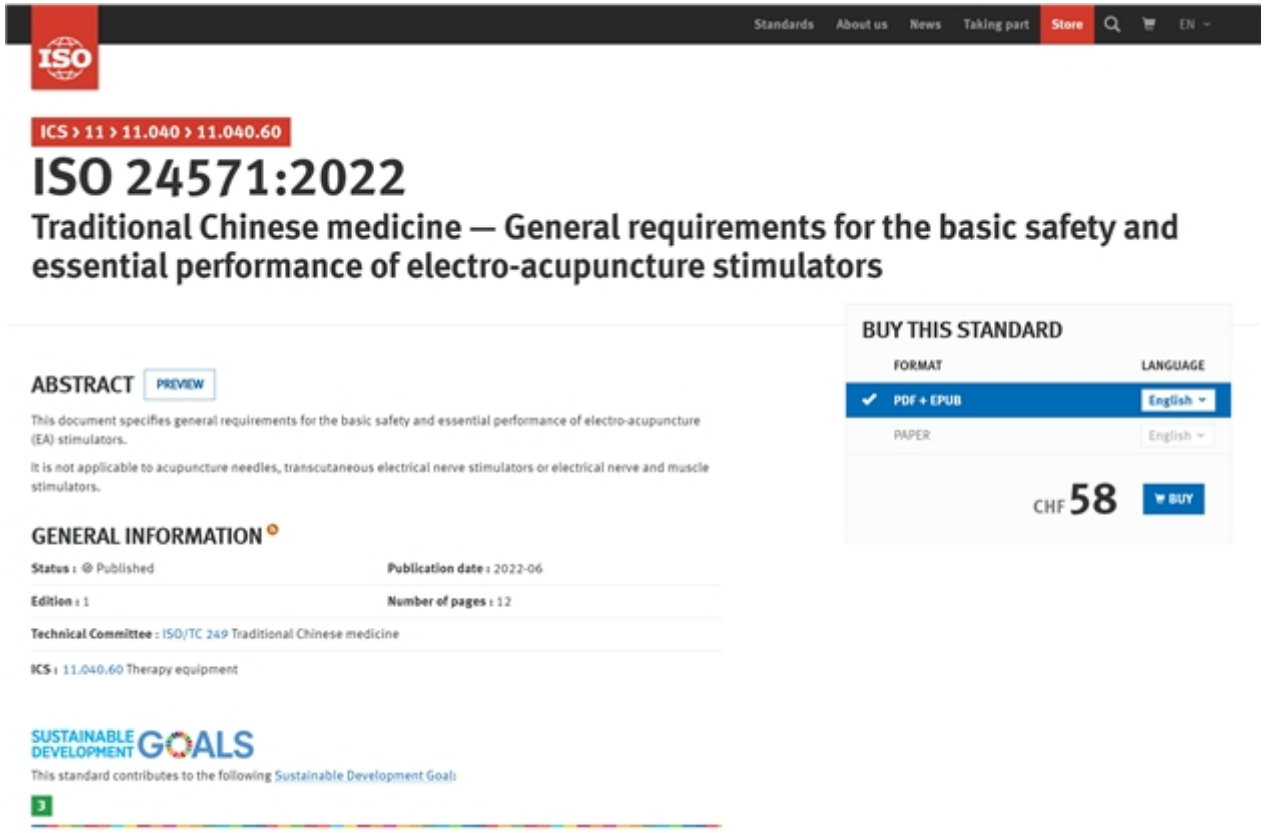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은 ISO/TC249/WG4 회의에서 '전침기의 안전 및 필수성능 요구사항'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전침기는(電針器)는 침을 찌른 부위에 전극을 연결해 침에 전기를 흐르게 하는 치료기기다. 경혈에 전기자극을 주어 치료효과를 극대화하는 한의학과 현대과학을 결합한 대표적인 치료기기이다.

이번 국제표준 발간은 ISO/TC249 제8차 정기총회(2018년)에서 상정된 '전침기의 안전 및 필수성능 요구사항' 국제표준 제정 안건이 본회의에서 확정된 후, 한의약데이터부 이상훈 책임연구원이 중국, 일본 및 캐나다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프로젝트 리더를 맡아 수년간의 노력 끝에 추진됐다.

한의학연은 본 국제표준에 일반 전자의료기기와는 다른 침습형 전침 시술의 특징을 반영하여 환자와 시술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ISO/TC249/WG4 의장인 한의학연 최선미 책임연구원은 "세계적으로 전통의학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각 국가는 자국이 보유한 전통의학 의료기기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다국가 협력을 통한 국제표준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전침기의 안전 및 필수성능 요구사항'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사진=한의학연]

**김지영 기자** orghs12345@hellodd.com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